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2호

[김현수 칼럼]

2024 한국 스포츠의 미래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다함께 차차차 다함께 호호호

모두의 '스포츠권'을 위하여

서혜미 한겨레 기자

경기 초중고 1년새 34개팀 감소

“소년체전 나갈 선수가 없다”...학령인구 줄어 40년 명문 씨름부까지 사라질 위기

지건태 문화일보 기자

입시를 위한 기록 만들기, 괜찮나요?

잘하는 선수가 뛰지 못하는 이유, 고등학교 코치들의 이유 있는 항변

조원규 스포츠칼럼니스트

한국 母 나이지리아 父 사이 출생

‘육상 유망주’ 나미디 조엘진 선수 “외모 달라도 난 한국인...마의 10초 벽 허물 것”

강승훈 세계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김현수 칼럼] 2024 한국 스포츠의 미래

2022년 6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제 목적을 흔들림 없이 달성하기 위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를 두도록 했는데, 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12월 20일에 이르러서야 첫 회의가 열렸다.

정책위의 위원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무려 15개 부처의 장관(급)과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포함,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번 1기 민간위원에는 이애리사(전 태릉선수촌장), 허구연(KBO 총재), 이종각(전 체육과학연구원장), 박종훈(가톨릭관동대 교수), 김석규(동국대 교수), 김기한(서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민간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체육계 원로들이 추천한 자들이 선발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당연직인 대한체육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각종 체육 관련 단체를 줄줄이 나열하며, 모든 대한민국 체육인의 중지가 모인 듯 번갈아가며 성명을 발표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후 장관 퇴진 운동 등 실행사까지도 예고했다. 성명서에는 문체부와의 갈등 관계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된 해병대 캠프까지 ‘뭐가 문제냐’는 식의 격앙된 반응도 담겼다. 이에 대해 문체부도 이례적으로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체육계의 이런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를 주도하는 이들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체육인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자임하며, 각종 요구를 관철하는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체육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대처 방식도 기존의 레퍼토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같은 편’을 주요 자리에 ‘꼴’ 자리싸움에 민감한 것도, 누군가 이견을 보인다면 ‘현장’을 모르는 소리로 일갈하는 모양새까지 한결같다.

이들이 자기 밥그릇에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이, 한국의 풀뿌리 스포츠는 고사 직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한국은 워낙 스포츠 강국이다 보니 마치 대단한 저변이 갖추어진 가운데 우수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 연일 승전보를 올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선수가 없어 지역대회 개최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선수, 없는 선수 굶어모아 전국대회만 근근이 치루는 종목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어떤 종목에서는 참가실적을 위해 경기를 해본 적도 없는 일반 학생을 경기장에 가만히 세워두는 ‘꼴’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다.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현장’에는 비인기 종목 지도자들의 선수 유치에 눈물겨울 지경이다. 태권도 학원처럼 방과 후에 운동을 시키고, 다른 학원 픽업도 해주는 데다가 무료로 운동할 수 있다며 선수를 모으고, 사재를 털어 밥도 챙겨먹이며, 고단한 학부모들의 육아를 덜어주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한 명이 아쉬운 운동부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지도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최근 운동부에 들어오는 학생은 다문화 또는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많은데, 공부만 시키려는 한국 학부모들의 ‘조바심’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축구나 야구와 같은 인기 스포츠가 아니라면 이런 현상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멋진 스포츠 선수를 꿈꾸며, 운동부에 들어오지만 선수등록에서부터 한국 사회의 텃세를 맛보기도 한다.

눈을 돌려보면 무료한 주말, 마을 어귀 다리 밑에는 운동할 시설을 임대할 돈도, 방법도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터에 크리켓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만의 주말 운동회를 즐기고 있다. 지방의 지자체장과 담당자들은 부족한 일손을 구하기 위해 해외로 발품을 팔며 애를 쓰지만, 그들이 한국에 와서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남들이 안보는 공간을 찾아들어 가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과거 이민자가 급증한 프랑스는 일찍이 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방법을 통해 스포츠 저변과 실력을 모두 잡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진짜 현장’에 있는 풀뿌리 지도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한국 사회 스포츠 저변을 지탱하는 ‘진짜’ 원동력이다. 몇 명을 추려 ‘운동기계’를 만들던 과거 방식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 남아있지 않다.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 할아버지의 외침 “이러다 다 죽어~!!”가 생각난다. 정권에 따라 옆치락뒤치락 말고, 곳곳하게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세우고, 밀고 가라는 의미에서 어렵게 만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개혁에 실패하고 진부함만이 남은 구태의연한 자칭 ‘체육인’ 세력의 자리싸움 따윈 외면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이민자들이,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권을 향유할 수 있는 ‘진짜’ 방법부터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모두의 '스포츠권'을 위하여

“너 그러다가 ‘근돼’(근육돼지) 된다. 살을 빼고 싶으면 유산소운동만 해.” 십수 년 전부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동네 피트니스센터에 가서 운동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트레드밀 위에서 걷거나 뛰기도 했지만, 돌아가며 여러 기구를 사용하는 근력운동이 덜 지루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등·하체처럼 큰 근육 운동을 하는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여성이 근육운동을 하면 몸이 울퉁불퉁해져서 보기 좋지 않다’는 고정관념이 지금보다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육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즘 저는 피트니스센터에서 젊은 여성뿐 아니라 중장년 여성들이 여러 기구를 익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회사 동료도 “휴무일 오전에 피트니스센터에 가면 할머니들이 개인운동지도(PT)를 받는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과 근육량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니,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운동하는 여성이 많아지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꼭 건강과 미용 목적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취미로 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점도 그렇습니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취재하면서 우리가 ‘운동할 자격’을 따져 묻는 사회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뒀을 때 운동은 사치였습니다. 그 시간에 글자 하나라도 더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취재 영역으로 한정하자면, 저 역시 배구 같은 종목은 엘리트 선수들의 운동으로 여겼습니다. 게다가 중장년 여성이 충분히 즐길 만한 스포츠라고 인식한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댄스스포츠를 하는 시각장애인도, 낯선 타지에서 축구를 즐기는 아프리카 이주민·난민의 이야기도 낯설었습니다. 새삼 걷기를 제외한 격렬한 운동에 대해 제 안의 고정관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스포츠권’은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권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큽니다.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느라 수업에 빠지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동료와 감독에게 폭력을 당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때에야 나오는 단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협소한 의미의 스포츠권은 성별·연령·장애·국적·성적지향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스포츠권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둘 다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국제사회에는 스포츠를 인권으로 보는 분위기가 수십 년 전부터 형성됐습니다.

다른 선진국보다는 한발 늦었지만,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헌장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계기로 이 기본권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살피겠습니다.

구분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경남	전남
초	4	4	-	1	3	5	2	2
중	7	2	10	1	4	4	8	1
고	3	0	4	1	2	-	-	4
계	18	9	10	3	9	9	10	7

“소년체전 나갈 선수가 없다” ... 학령인구 줄어 40년 명문 씨름부까지 사라질 위기

자료: 전국 시도교육청

40년 전통의 인천 부개초교 씨름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 선수를 모집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다. 2년 전부터 단 한 명의 선수도 모집하지 못한 데다 남은 6학년 선수 3명마저 이달 졸업해 사실상 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 학교 씨름부는 1983년 창단해 그동안 전국소년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에서 수차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씨름 명문이지만 최근 학교 측은 시 교육청에 팀 해체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8일 인천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개인 및 클럽 스포츠 문화가 확산하면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가 급격히 줄고 있다. 더는 학교체육을 통해 축구의 손흥민, 수영의 박태환,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같은 선수를 발굴·육성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부개초교와 같이 신규 선수를 모집하지 못해 운동부를 해체한 초등학교만 4곳에 달한다. 이들 학교가 운영하던 5개 운동부가 사라지면서 미래 국가대표를 꿈꾸던 엘리트 선수 45명이 진로를 포기해야 했다. 역대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서 학생부 종합우승을 매년 독차지하던 경기도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운동부 해체를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학교운동부가 초중고 합계 576개교 700개 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594개교 734개 팀보다 18개교 34개 팀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등록 선수는 7876명에서 7659명으로 217명(2.7%) 줄었다.

이 같은 학교운동부 감소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 추세다. 지난해 대구와 경남에서 각각 10개, 대전과 울산에서 각각 9개 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운동부가 줄면서 각종 전국대회에 지역과 학교를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제52회 소년체전에서 13세 이하 남자 축구 종목에 출전한 전국 17개 시도 대표팀 가운데 전남과 대구를 제외하고 모두 학교운동부가 아닌 사설 학원이 운영하는 유소년 클럽이었다. 더욱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심각한 인구 노령화와 공동화를 겪는 원도심에 있어 신규 선수 모집에도 애를 먹고 있다. 최영환 인천시교육청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 해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잘하는 선수가 뛰지 못하는 이유, 고등학교 코치들의 이유 있는 항변

농구는 5명만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12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코치는 선수 교체를 통해 전술의 변화를 줍니다. 선수의 체력 관리와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로테이션은 중요합니다.

최근 로테이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고등학교 코치들이 많습니다. 개인 기록이 대학 입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수시 전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특별전형에서 연세대와 고려대의 1단계 경기실적 비중은 각각 77.8%와 70%입니다. 중앙대는 90%입니다. 1단계에서 받은 점수는 2단계 평가에도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어 최종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선수와 학부모 모두 출전 시간과 기록에 민감합니다.

출전 시간에 대한 배려는 코치의 기본 덕목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수는 경기를 통해 성장하는데 실력이 출중해도, 훈련 태도가 좋아도 저학년은 양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연습경기에서 만난 A 고등학교 코치는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했습니다. 2학년 선수들의 기량이 3학년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출전 시간을 제한했던 선수들의 족쇄를 풀 수 있습니다.

B 고등학교 코치 역시 올해를 더 기대합니다. A 고교보다 3학년이 적어서 부담도 적었습니다. 그래도 선수를 교체할 때마다 불편함은 있었고, 3학년 없이 치른 추계연맹전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 용산고 14회 우승의 주역 김승우는 추가 합격으로 어렵게 대학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4개 대학에 원서를 냈지만 최초 합격자 명단에 김승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청소년 대표 출신에 작년 용산고 5관왕의 주역이고 '2023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최우수선수입니다. 그런데 추가 합격입니다. 어떻게 경기실적을 해석해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수시 선발은 대학의 고유 권한입니다. 개연성 있는 추측들이 난무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추측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선수와 부모에게 큰 불안을 준다는 점입니다.

대학보다 프로 진출을 선호하는 야구나 축구와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농구는 대학을 거쳐 프로에 갑니다. 많은 고교 농구선수에게 대학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선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언제 짙은 안개가 드리워질지 알 수 없습니다.

철학자이자 교육사상가인 모티머 아德勒는 "학습의 목적은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선수는 지성과 인성에 더하여, 운동선수로서의 능력도 성장해야 합니다. 개인 기량은 물론이고, 팀 스포츠는 개인의 능력을 팀의 경기력 향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 고등학교 코치는 "완벽한 기회인데 패스를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선수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의 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농구는 팀 스포츠라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지금의 특기생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종목별 세부 선발 기준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에서 공통으로 개발, 관리하는 방안 같은 것입니다. 대학의 높은 윤리의식에만 의존할 문제는 아닙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과거에 꼭 필요했던 제도가 현재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은 중요합니다.

학생선수는 학생으로서 또 선수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의 특기생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거리 육상 유망주’ 나마디 조엘진 선수 “외모 달라도 난 한국인... 마의 10초 벽 허물 것”

“출발선은 모두 동일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때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총성과 함께 트랙 위 같은 거리를 달리지만 0.1초 차로 순위가 갈리는 단거리 육상. 세계에서 미국과 자메이카 등이 대표적 강국이다. 국내에는 김국영 선수가 남자 간판으로 꼽힌다. 2017년 코리아오픈 100m 결승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10초07. 여전히 9초대 진입은 꿈이라고 불린다.

한동안 잠잠했던 육상계에 희소식이 들린 건 지난해 8월. 그것도 성인 무대가 아닌 고교생이 겨룬 제44회 전국 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 남자 고등부 100m 결선이 끝난 직후였다. 전광판에 적힌 숫자는 10초36. 기존 고등부 한국 신기록을 5년2개월 만에 갈아치운 순간이다. 현지 운동장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경기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소속 나마디 조엘진(18·2학년)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2일 사우동 김포종합운동장에서 만난 조엘진 선수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실전처럼 점차 강도를 높여 갔다. 그는 “얼마 전까지 기말고사를 치르느라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 학생이라 학업에도 소홀해선 안 되지만 쉽지 않다”면서 밝게 웃었다.

키 185cm, 80kg 몸무게로 동료들과 비교해 체격이 월등하다는 게 지도자들의 판단이다. 아주 건강한 까무잡잡한 얼굴에 곱슬거리는 헤어스타일이 돋보였다. 서구적인 이름도 대중의 눈길을 끈다.

한국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아버지를 뒀 외모가 조금 다를 뿐이라는 조엘진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초·중·고교의 청소년기를 보낸 곳은 김포”라고 간략히 소개했다.

그에게도 힘든 시기는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코치의 권유로 육상을 시작했고 기량이 차츰 향상되던 중학생 시절 슬럼프에 빠졌다. 발목 뒤꿈치에 극심한 성장통이 찾아왔다. 달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다행히 고교에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치유됐지만 3년은 고스란히 공백의 시간으로 남았다.

“그간 부진을 만회하고자 체력 강화와 함께 훈련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하체 탄력과 근력을 빠르게 키우기 위함이었죠.”

꾸준히 기록 단축에 성공하던 중 지난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고등부 100m 한국 신기록을 쓴 무대에서 3관왕에 올랐고, 2개월 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때 출전한 100·200m 경기에서 경쟁 선수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대한민국 육상 차세대 스프린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평이다.

조엘진 선수는 자신만의 스타로 미국의 노아 라일스를 든다. 그는 “제19회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와 200m에 이어 400m 제주도 우승하며 2015년 우사인 볼트 이후 처음으로 3관왕에 올랐다”고 알렸다. 이어 “육상 단거리 황제라는 별칭이 붙은 라일스 같은 인물로 거듭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조엘진 선수는 평소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마음을 가다듬는다. 기타를 치거나 그림을 그리며 스트레스를 푸는 데 실력이 수준급이라고 한다. 겨울방학 동안에는 더 바쁜 일정이 예고됐다. 학교 팀 연습에 더해 상비군 자격으로 대한육상연맹 주관의 훈련도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3학년으로 올라가는 올해 6월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치러지는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일반 선수들과도 겨룰 예정이다. 이미 최고 유망주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목표다.

조엘진 선수는 “지금의 몸 상태는 유지하고 발전을 지속시켜 조속히 더욱 상위 랭커에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마의 10초 벽을 허무는 선수로 기록되는 순간까지 도전을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순창군,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창단...전북 체육계 '환영'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04_0002581092&cID=10808&pID=10800

구미시, 전국 유도선수 '동계훈련' 유치... "530여명 참가"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08_0002584956&cID=10810&pID=10800

개신초, 제46회 충북교육감배 학생수영대회서 금빛 물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96044>

2025아시아기계체조선수권 유치 나선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025380&code=61121111&cp=nv>

대한핸드볼협회 남녀 초등학생 대상 제2회 '핸볼' 페스티벌 성료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87800?ref=naver>

호남대 축구학과 '학생역량 강화 우수선수 양성프로그램' 참여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470>

김학철 시흥 서해고 축구부 감독 "꾸준히 훌륭한 선수 키워내고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104580066>

“제가 28번 물려받아도 될까요” 야구 취미반 학생, 어떻게 132승 전설 후계자 됐을까 [오!센 인터뷰]

<https://www.osen.co.kr/article/G1112250057>

탈당한 허은아 자리,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승계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16473>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